

## 내포지역 海灣開拓의 전개와 景觀變化의 사회적 주체\*

- 조선후기~1960년대 가로림만 일대를 중심으로 -

진 중 한\*\*

## The Reclamation of Tidal Land and the Making-Group of Landscape in Naepo Area, Korea\*

- Centering around the Garorim Bay from the 19<sup>th</sup>C to 1960s -

Jong-Han Jeon\*\*

**요약** : 이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지역의 정체성 및 경관 특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연구에서 가시적, 형태적 접근 대신 그 형성의 사회적 과정에 중점을 두자는 점이었다. 필자는 내포지역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海灣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징에 착안하여 접근하였다. 내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 요소로 대변될 수 있으며, 해만이라는 生態的 環境 속에서 인간에 의한 개척의 과정은 이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은 조선 시기에는 鹽田化를 주된 방향으로 하였고 일제시기가후 耕地化가 본격화되었다. 광복이후에도 줄곧 경지화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염전화가 일제시기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토지 이용으로 존속해왔다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地理的 長期持續性은 소금 생산이 이 지역의 生態的 環境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적응전략이라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해만 개척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연구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적 지배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전통 시기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다.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동안 주목되는 점은 조선시기의 해만을 점유했던 자영업 종사자들이 거대한 자본가이자 대토지 소유자로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정치·사회적 변동은 鹽漢의 수익 증대를 가능케 했고 수도권과의 직교역이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 및 전통적 권력 집단인 사족층의 세력이 미약했던 점 등은 당대 이들에게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배 집단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내포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이 호남 지방의 염한이나 영남 지방 혹은 영동 지방의 염한들과는 다른 차별적 성장을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들은 전통 시기 내포지역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던 존재로서 일제시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적 지배 집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권력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신흥 집단이 성장하는 데 의존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는데 대토지 소유의 배경은 다름 아닌 소금 생산이라는 생태적 토지이용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단초로 하여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 성장한 이들은 연구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응하고 정치·사회적 변동에 편승하면서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해만개척 및 삼림지 개간을 주도하는 등 景觀變化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주요어 : 海灣 개척, 鹽田化, 耕地化, 생태적 환경, 적응 전략, 지역 엘리트, 경관 변화

**Abstract** : Bays and caps represen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Naepo area in Korea. And reclamation of tidal land presents a clue toward the understanding of regional identities and landscape changes in this area. Reclamation of tidal land in the Garorim bay that is representative of the physical geographies of Naepo area had trended toward 'the diffusion of salt ponds' during Joseon dynasty. Hereaft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reclamation had turned to 'the reclamation of arable lands' by drainage. But, at the same time the land use of salt pond that had been the most appropriate strategy of adaptation for the ecological environments of this area has

\* 본 연구는 2003년도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2-072-AM1008).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Full-time Researcher, The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ilotopoer@yahoo.co.kr

showed a sort of the geographical long-term durability. And the great landlords that had emerged during Japanese imperialism were the *Yeom-han*(鹽漢, laborers who engaged in salt production) in former times. They as a new local elite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reclamation of tidal land and the making of regional landscape.

**Key Words** : reclamation of tidal land, salt pond diffusion, arable land expansion, ecological environment, adaptation strategy, local elite, making landscape

## 1. 서론

지리학에서 경지 개간과 경관 변화에 관한 연구는 문화지리학, 촌락지리학, 역사지리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경지를 촌락이나 자연 환경 요소와 결부시켜 地理的 連鎖의 시각에서 고찰하며, 경지 형태 및 토지 이용 패턴 같은 문화 경관을 인간의 지표 점유 과정과 지역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인식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제에 있어서 저습지의 배수, 삼림지 벌채, 황무지 관개, 토지 이용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H.C. Darby의 선구적 연구(1954; 1957) 이래 방법론상 橫斷面法 혹은 이를 보완한 수직적 횡단면법(vertical cross-sectional approach)에 의존하면서 주로 특정 시기별 景觀 復元을 추구하고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들은 경관이 생산되는 사회적 배경이나 주체의 문제를 탐색하기보다는, 인문 현상의 地域的 差異를 염두에 두고 경관이 갖는 형태적 측면의 복원과 가시적 패턴의 역사적 변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문중, 1988; 최영준, 1991; 이준선, 1998; 김경수, 1999; 정치영, 2000; 남궁봉, 2001; 홍금수, 2001).

경지 개간 과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색을 반영한다. 또한, 당대의 자연 환경 극복 기술,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제도적 여건 변화, 국가 중심지와의 사회·정치적 구심력 및 원심력 등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되므로 형태적 범주 내지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지 개간에 관여하는 이들 다양한 요소의 지역적 차별성을 염두에 두는 시각은 보다 넓은 스케일의 공간에 포섭된 일부로서 연구 지역의 경지 개간이 갖는 보편성과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지 개간 및 소유의 문제는 특정 시기의 지배적 사회집단이 형성, 존속, 재편하는 데 일

차적으로 기여하는 물질적 동인이 되며, 반대로 사회적 맥락이 경지 개간 및 경관 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맺기도 한다. 경지 개척의 문제가 사회적 차원의 변화와 연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며, 이 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지 개간 및 경관 변화를 그 사회적 주체와 관련시키는 작업, 즉 社會的 過程에 관한 탐구가 이 분야에서 절실하다(전중환, 2002b).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내포 지역의 경지 개간과 경관 변화에 관해 접근하려고 한다. 內浦地域이란 『택리지』에서 그 영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충청도 서북부의 가야산 주변 군현들을 일컫는데<sup>1)</sup> 지형적으로는 오늘날의 태안반도 일대와 거의 중첩하는 범위이다. 「內浦」라는 지명은 그 공간 스케일이 비교적 대단위라는 면에서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시각에서 명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 특성에 어원을 둔 지명이므로 정확한 공간적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內浦 즉 ‘안개’라는 단어 의미가 보여주듯이 이 지역이 갖는 자연 지리적 특징은 분명한데 그것은 크고 작은 海灣과 感潮河川 및 浦로 대변된다. 이 점은 여러 가지 자연지리적 요소 중에서도 해만, 특히 해만 개척의 과정이 이 지역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지역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2)</sup> 이 점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는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려 하며 우선 해만 개척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별 해안선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해만 개척의 형태적 측면을 포착할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형태적 변화의 급변기에 주목하면서 어떤 사회집단들에 의해 해만 개척과 토지 소유가 주도되었는가, 해만이라는 공간을 점유했던 사회집단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탐구함으로써 경지

개간의 문제를 社會地理的 脈絡에서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한편 연구 지역인 가로림만 일대는 내포의 자연 지리적 특징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내포 지역의 지리적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1970년대 이후의 대규모 방조제 축조 사업이 미치지 않은 몇 안되는 곳이므로 인간 거주지로서 내포 지역의 생태적 환경 및 해만 개척과 관련된 과거의 경관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복원할 수 있다. 필자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수 차례의 현지 답사와 향토사가 및 지역민과의 면담, 문헌 분석을 통해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과 경관 변화, 사회적 변동에 있어 공히 매우 중요한 전환기가 바로 일제 시기 전후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점은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이며, 연구 주제가 갖는 歷史地理的 變遷의 선후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조선후기, 일제시기, 그리고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기를 수직적 횡단면들로서 상정하기로 한다.

## 2. 해만 개척의 시·공간적 전개 과정

### 1) 조선후기 이전의 역사적 배경과 추이

고려시기에서 조선후기까지, 한반도 서해안에서 지리적 고립성이 강해 주민의 출입 규제가 용이했던 많은 串이나 島嶼는 목장지나 관급 목재 생산지, 방어를 위한 浦津의 입지 등 주로 국가 주도하에 '官의 空間'으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통 시기의 串과 島嶼가 가졌던 이러한 官의 空間으로서의 성격은 조선후기를 지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쇠약해지고 불규칙해짐에 따라 점차 변질되어갔다. 특히, 조선초기에 선포된 空島 政策<sup>3)</sup>에도 불구하고 조선중기이후 원격지인 경상도, 전라도 일대의 섬들에는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반 백성들의 이주와 불법 점유가 진행되었다는 보고가 있다(김경옥, 2000). 물론 학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통상 이해되고는 있지만 그것의 정도는 지역적으로 달랐던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

다. 가령, 안면도, 대산반도, 난지도 등 충청도 이북으로부터 황해도 이남에 걸쳐있는 串이나 섬들은 漕運路나 運河 건설과 관련해서 조선말기에 이르도록 중앙 정부의 관심이 지대하였다. 따라서, 국가 중심지로부터의 접근성과 감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했기 때문에 官의 空間으로서의 성격이 조선후기까지도 지속되었다.

반면에, 串이나 島嶼와 달리 海灣 일대는 관청과 창고 등 국가 시설 주변의 일부 屯田 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찍부터 일반 백성이나 사족들의 占有가 허용되던 '民의 空間'이었다. 해만은 조선초 『朝鮮經國典』에 규정했던 이른바 '山場水梁'<sup>4)</sup> 혹은 '山林川澤'의 '與民共之' 이념에 상응하여 公的 空間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sup>5)</sup> 한편에서는 15세기 이전부터 일반 백성들의 私的 점유를 용인하고 있었다. 海邊 泥生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王朝實錄』이나 『承政院日記』속의 수 많은 訟事 기록들<sup>6)</sup>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조선 시기의 각종 史料에서는 해만 안쪽의 간척지를 「海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독을 쌓음으로써 해택을 조수로부터 보호하도록 만든 경지를 「堰畚」 또는 「堰田」이라 하여 堰, 즉 방조제를 쌓아 만들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海澤을 막아 방조제를 쌓는다는 기록<sup>7)</sup>은 15세기 전반(1426년)부터 확인되고, 堰畚이라는 용어는 15세기 후반(1479년)의 기록<sup>8)</sup>에 최초로 등장한다. 이렇게 당시의 기록상에 이들 景觀이 용어화되어 등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15세기 전반부터 이미 언전 개간이 널리 확대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주목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해만 간척지에 대한 사적 점유가 허용되었다는 것이 곧 일반 백성들에 의해 개간이 주도되고 소유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았다. 아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기에 있어서 방조제를 쌓는 작업은 순전히 인력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언답의 규모는 극히 작을 수 밖에 없었고 이 또한 많은 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왕족이나 권세가들에게서 가능하였던 탓이다.

“海澤의 耕地는 소출이 배나 더 되지만, 광대하고 먼 浦이면 하루 이틀 내에 반드시 수백 인을 청해 부려서야 물을 그치게 하고 막을 것이오며, 그 먹이는 것이나 공임도 또한 반드시 布貨 수십 필과 쌀 수십 석을 가져야

능히 支供하므로 재력이 매우 크게 들기 때문에, 비록 부요한 집이라도 쌀을 수가 없사오니 …”(『世宗實錄』 22年 3月 23日 乙丑條).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조선시기의 해만 개척은 16세기 이후 군사력이나 대규모 인력 동원의 권력을 지닌 宰相家, 戚里家, 王子家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견해(이태진, 1983)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해만 개척이 본격화된 시기가 언제부터였는가에 대한 해답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는 15세기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고, 지역적 전개의 시점과 사회적 주체 역시 전국적으로 매우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포 지역 가로림만 일대에 있어서는 중·소규모의 해택 및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여(그림 1참조) 형태상 언전 개간이 활발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견해와 달리 조선말기까지 墾畝 개간을 통한 해만 개척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일대의 자연지리적 특성 및 인간 거주지로서의 생태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간석지가 언전으로 개간되기 위해서는 일단 방조제 축조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입구가 작은 소규모 해만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河川水나 貯水의 淡水灌溉를 통해 적어도 5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간석지의 鹽分 제거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간의 관개 못지 않게 담수 공급의 持續性 여부도 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간척이 추진된 강화 지역의 경우에도 뚜렷한 수원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서 습지 수로를 활용한 우수 저수법이나 洑의 축조, 용천대에 못을 파는 방법 등 관개망 구축법이 다각적으로 고안되었을 만큼(최영준, 1991) 관개수 확충의 문제는 언전으로의 개간을 위해 관건으로 작용하는 인자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림만 일대에는 넓은 간석지와 소규모 해만 분포가 널리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의 동쪽과 서쪽 모두 가늘고 긴 형태의 반도가 위치하므로 분수계 안쪽의 집수면적이 좁고, 이 결과 가로림만 일대에는 間歇河川이 산발적으로 분포할 뿐 지속적 담수공급을 위한 永久河川은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굴포 운하

의 개척이 시도된 바 있는 가로림만 남쪽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집수 면적은 비교적 넓어 보이나 수직적 배수가 강한 화강암 풍화토로 이루어져 있고 구릉성 평지라는 지형 조건상 역시 하계망 발달이 미약하다. 요컨대, 가로림만을 둘러싼 분수계 내측의 좁은 집수 면적 및 하천 발달이 곤란한 구릉성 평지라는 자연지리적 요소가 염분 제거에 요구되는 충분한 담수 확보를 제한함으로써 가로림만 일대의 언전 개간에 결정적 장애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국지적으로 담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로림만 일대의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sup>9)</sup>는 방조제 구축 및 그 이후의 언전 유지에 큰 장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내포 지역의 서산, 태안 지방은 조선 태종 대까지 왕의 講武處로 설정되어 삼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취해졌고,<sup>10)</sup> 인조 때에는 황해도연안, 해주와 함께 전란시 江都 방어를 위한 중간 방어선으로 설정된 바 있다.<sup>11)</sup> 이 외에도, 고려시기로부터 조선전기까지 추진된 굴포 개척이나 목재 생산을 위한 封山 지정과 숙종대의 안면도 착륙 사업 등이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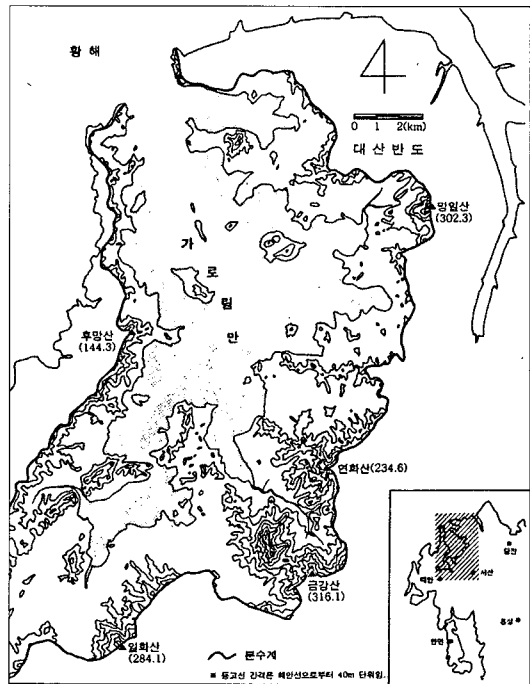


그림 1. 가로림만 일대의 지형과 분수계

접적 통제가 많았다. 특히,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여지도서』나 각종 읍지에 삽입된 고지도들에는 가로림만 동·서 양안의 大山串(大山半島)과 梨山串 및 薪串(이상 梨園半島)에 官營 목장이 설치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세종실록』과 『여지도서』에는 대산반도의 대산곶에 한 곳, 웅도에 한 곳, 이원반도의 서사면(梨山串)에 한 곳, 동사면(薪串)에 한 곳 등 모두 네 곳의 목장이 언급되고 있다.<sup>12)</sup> 대산반도의 북부에 위치했던 대산곶 목장의 경우, 당초 태안군 多利串<sup>13)</sup>에 있던 것을 물과 풀이 좋지 않아 세종 8년(1426년)에 옮겨왔다고 하며, 場門이 망일산 부근<sup>14)</sup>에 있었고 규모는 남북으로 30리, 둘레가 70여리였음이 확인된다.<sup>15)</sup> 가로림만 일대에 설치되었던 이들 네 곳의 목장 중 대산곶 목장은 이 곳에 주둔하였던 종3품의 平薪鎮<sup>16)</sup> 倉節制使가 관리하였을 만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시 하였다. 이와 같이 서산과 태안 지방의 곳곳에는 조선초기부터 중앙 정부가 수시로 관여하면서 일반 백성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하였는데, 가령 『왕조실록』의 기록들에는 태안 지방에 목장을 설치하기 위해 예정지 내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고 쓰고 있다.<sup>17)</sup> 그리하여, 조선 세종대까지도 태안 지방은 백성이 적고 토지도 한광하며 田地가 넓게 비어 있었다.<sup>18)</sup> 따라서, 강무처 설정, 수도 방어를 위한 방어선 지정, 국가적 토목 공사, 목재 생산을 위한 봉산 및 목장의 설치라는 이 지역의 역사적 이력 또한 가로림만 일대를 거시적 틀에서 官의 空間化 함으로써 民에 의한 해만 개척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2) 일제강점기 이후 해만 개척의 국지적 전개

조선시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과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 전국적인 경향과 달리 「경지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한가지는 본격적인 개간 시기가 「일제시기」로서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이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관련이 깊다. 소규모 해만과 간석지가 널리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담수 확보의 어려움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을 「해만 개척=농경지화」의 進路가 아닌

「해만 개척=염전화」로 유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만, 이 경우 염전화란 일제시기 이전까지 천일제염에 의한 염전이 아닌 煮鹽을 위한 벗 시설 및 벗밭<sup>19)</sup>의 분포를 의미한다.

한편 가로림만 일대는 한반도 서해안 중에서도 황해를 향해 돌출되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간석지의 토양 입자 구성에서 아산만 일대의 그것에 비해 사질토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토질 조건 역시 조선시기의 보편적 소금 생산 방법이었던 煮鹽方式에서 열 효율 및 노동 효율성 향상과 직결되었으므로,<sup>20)</sup>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을 염전화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지하수 개발 및 저수지 축조를 통해 충분한 담수를 공급받기 전까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에 있어서 鹽田化는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적응 전략이었음을 뜻한다. 조선중기 태안 지방은 소금을 굽는 鹽盆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私적으로 불법적인 소금 생산에 임하는 백성 또한 상당수에 달했다고 하는데,<sup>21)</sup> 이 같은 기록은 조선시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에 있어서 자염 시설 분포가 광범위했을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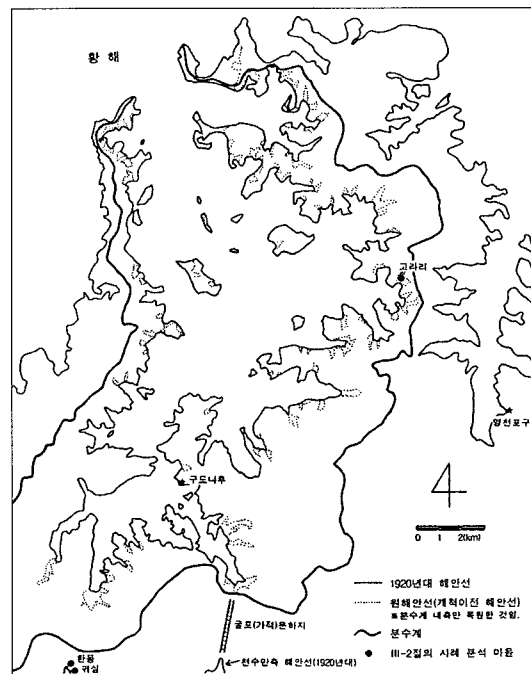


그림 2. 가로림만 일대의 해안선 변천  
(원해안선과 1920년대 해안선)

이와 같이 조선말기까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은 일부 소규모의 것을 제외하면 과거의 해안선을 대체로 유지한 채 국가나 개인에 의한 소금 생산 지로서의 역할이 주된 기능이었다.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소규모 해만을 중심으로 하여 해안선에 인접한 내륙 쪽으로는 과거 어느 시기부터인가 자연 샘에 의존하여 堰畚으로의 개간이 진척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流水 공급이 지속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염해의 피해가 속출하거나 일정한 수확량을 보장받을 수 없는 天水畚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산반도의 경우 가로림만 연안을 따라 분포하는 陸畚 중에는 오늘날까지도 천수답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러한 생태적 여건 하에서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에서는 경지화로 유도하는 動因보다 염전화로의 作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했음이 분명하다.<sup>22)</sup> 이 점은 조선시기 전체에 걸쳐 풍부한 담수 공급을 배경으로 해만 개척의 방향이 둔전이나 궁방전 등 경지화를 향해 진행될 수 있었던 내포지역 아산만 일대의 상황<sup>23)</sup>과 대조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조선시기 가로림만 일대에 중앙 정부의 재상가나 척리, 왕자가 등의 세력이 거의 미치지 못한 이유도 경지화에 불리한 생태적 조건이 이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기 주요 권세가들의 세력이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말은 이들 주도의 地域化過程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기

에는 해만의 방조제 축조에 요구되는 충분한 재력과 대규모 노동 인력, 당대의 선진적 토목 기술 등이 가로림만 일대에 공급되지 못했음을 함축한다. 결과적으로, 조선말기까지 가로림만 일대는 소규모 해만 안쪽에 陸畚이 간간히 분포할 뿐 대부분의 해만과 그 전면에 펼쳐진 간석지에 있어서는 堰田이나 堰畚보다 벗 시설 및 벗밭이 지배적으로 분포하는 경관이었을 것이다.

일제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표 1에서 표 3까지는 일제시기 전반 가로림만 일대에서 수행된 해만 매립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도표를 통해서 당시 출신지나 성분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본격적인 해만 개척이 진행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표 1을 보면 1927년 현재 가로림만 연안에서의 매립 준공 인가자는 2명이 있었는데 서산군 관내의 전체 인가자 76명중 유일하게 外地人들이었다. 당시 서산군내<sup>24)</sup> 그 밖의 지역에서 매립된 74건의 주체가 모두 각 面 官內의 지역 주민이었다는 점과 대비되는 사실이다.<sup>25)</sup> 적어도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이 일제시기 이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매립에 적절한 생태적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아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통계치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말해준다. 당시 서산군 관내에 허가된 10정보 이상의 대규모 매립 사업은 모두 31건이었는데 이 중 4건(12.9%)이 가로림만에 해당했다. 전체 31건중 약 54.8%(17건)가 경기, 전라, 경상도 등에 거주하는

표 1. 매립 준공인가지(1927년 현재)

순번	매립지	면적 (단위:町步)	지목	매립자	
				성명	주소
1	팔봉면 흑석리	0.9703	畚	康洪嫻	경기 부천군 소래면 금리리
2	지곡면 도성리	1.5807	畚	趙元奎	경기 고양군 용강리 하현리

표 2. 매립 면허지(10町步 이상, 1927년 현재)

순번	매립면허지	면적 (단위:町步)	매립자	
			성명	주소
1	팔봉면 흑석리, 대황리, 덕송리	513.4800	多田仲太朗	京畿 振威郡 松炭面 西町
2	이북면 사창리	85.2800	多田仲太朗의 2인	상동
3	팔봉면 어송리, 대황리	513.4800	多田仲太朗	京城 櫻井町 2町目
4	이북면 관리	28.6015	梨北面	

표 3. 매립 면허지(10町步 이하, 1927년 현재)

순번	매립 면허지	면적 (町步)	매립자		순번	매립 면허지	면적 (町步)	매립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대산면 독곶리	1.4522	金正九	대산면 대죽리	16	태안면 어은리	0.2008	金寧濟 외 1명	상동
2	대산면 독곶리	0.5209	田聖天	대산면 독곶리	17	태안면 산준리	0.7206	金東烈 외 1명	태안면 삭선리
3	대산면 독곶리	0.5205	金東宇	상동	18	태안면 산준리	1.7815	片永善	태안면 산준리
4	대산면 기은리	4.5114	大山面	.	19	태안면 산준리	1.3819	金興敦 외 1명	태안면 삭선리
5	대산면 기은리	5.3000	大山面	.	20	태안면 산준리	0.4525	片永善	태안면 산준리
6	대산면 기은리	8.8528	大山面	.	21	태안면 산준리	0.5800	池奎顯	상동
7	대산면 대로리	0.1820	尹化三	대산면 대로리	22	태안면 산준리	0.5107	池奎顯	상동
8	지곡면 환성리	4.5129	朴在善 외 5명	지곡면 환성리	23	태안면 산준리	1.5800	尹秀炳	태안면 남문리
9	지곡면 환성리	4.7523	地谷面	.	24	태안면 삭선리	0.7700	金興敦	태안면 삭선리
10	팔봉면 고파리	2.4926	李柱元	부석면 칠전리	25	태안면 삭선리	1.1015	韓興敦 외 1명	원북면 양산리
11	팔봉면 호리	0.9208	李象鎬	팔봉면 호리	26	이북면 관리	1.9527	李柱元	이북면 당산리
12	팔봉면 호리	2.6700	趙貞九	부석면 취평리	27	이북면 관리	0.7401	李柱元	상동
13	태안면 어은리	0.4201	金華植	태안면 산준리	28	이북면 상산리	1.1029	李柱弼	상동
14	태안면 어은리	0.7620	賈義永	이북면 마산리	29	이북면 상산리	1.2728	李宗煥	상동
15	태안면 어은리	0.7709	朴英昭	태안면 어은리					

※ 자료 출처: 李敏寧, 1927, 『瑞山郡誌』(下)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가로림만 연안에서 이루어진 4건의 매립 주체는 외지인의 비중이 더욱 높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4건중 梨北面에서 주관한 한 곳을 제외하면 세 곳이 모두 타지역 주민, 특히 日本人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표 3에서는 10정보 이하의 소규모 매립 면허지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내 총 143건중 가로림만 연안의 비중이 29건(20.3%)을 차지하고 있다. 가로림만 연안에서 진행된 매립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매립지의 비중이 대규모 매립지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점은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 많은 소규모 해만이 경지화에 적합한 공간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미개척지로 존속해왔음을 뜻한다. 한편 29건 모두 서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외지인의 경우와 달리 지역민들이 소규모 매립 사업에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림 3은 일제시기 이후 1990년대까지의 경지 개간과 해안선 변화를 복원한 것이다. 그림에서 1920년대 해안선과 비교하며 살펴볼 때 일제시기로부터 1950년대까지는 주로 가로림만 동서 양안에서 중규모 이상의 해만 매립이 진행되었고, 1960년대이후로는 가로림만 남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만 개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중규모 이상의 해만 개척이 가능했던 것은 다분히

충분한 담수 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제시기로부터 195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저수 시설과 지하수 개발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이다. 당시의 담수 확보 방법은 주로 官이나 일본인 주도하에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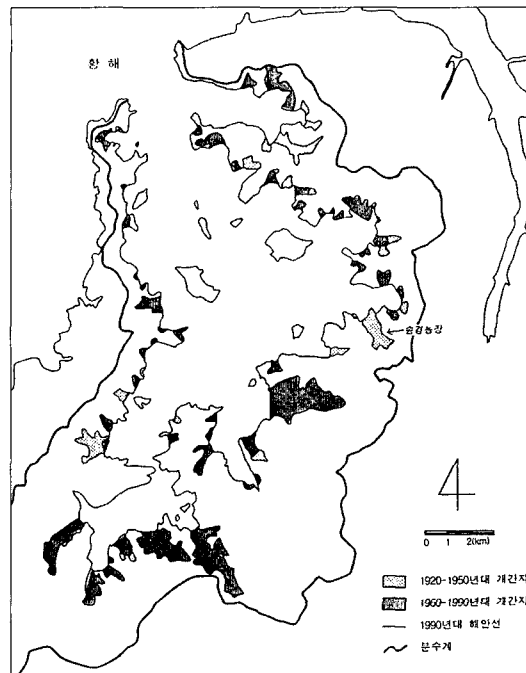


그림 3. 가로림만 일대의 경지 개간 과정(1920-1990년)

행된 저수지 축조 및 浦江<sup>26)</sup> 사업이었고, 1960년대 이후의 그것은 앞 세대에서 이어져 온 저수지와 함께 주로 지하수 활용에 의존하였다. 196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기를 지나는 동안, 포강은 그 기능이 지하수 펌프 시설에 의해 대체되면서 이 일대의 경관으로부터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상의 사실들로부터 일제시기 가로림만 연안의 해만 개척이 갖는 특징을 추출해보면, 첫째 外地人(특히 경기도 거주자)에 의해 해만 개척이 시작되었다는 점, 둘째 10町步(약 30,000평) 이상 대규모의 매립은 日本人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 셋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개척에 참여했다는 점, 넷째 해만 개척이 염전화로부터 전환하여 경지화로의 방향 즉 짚으로의 개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지인들은 대체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圖面 상에서 해만의 형태적 측면을 매립 사업 판단의 주된 근거로 하여 입지 선정에 임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서는 당연히 이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이나 생태적 조건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실제 매립 사업 진행 도중에 투입 자본을 회수하지 못한 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산 지곡면 도성리에 위치한 송경농장의 경우이다. 松耕農場 혹은 松京農場<sup>27)</sup>이라 불리는 이 매립지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경기도 개성인에 의해 추진된 매립지였다. 이 곳의 매립 사업은 일제 강점기 말엽(1940년대 초)에 시작되어 광복 전후의 시기에 방조제 축조를 마무리 하였으나, 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국 전쟁 이후까지 경지화되지 못하고 염류토 상태로 방치되었다.<sup>28)</sup> 그 후 1950년대 후반 서산군에 의해 사업이 재개되어 해만 안쪽에 지곡저수지가 준공되었고 이 때로부터 담수 관개가 시작되어 비로소 농경지로 개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사닥감 매립의 경우처럼 당대의 토목 기술 능력을 초과한 대규모 매립 사업에서도 실패하는 사례가 보였다.<sup>29)</sup>

일제시기에 전개된 경지화로의 전환은 광복 이후에도 계속되어 1950년대 이후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은 매립에 의한 경지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시기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해만의 토지 이용에 있

어서 鹽田이 꾸준히 맥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오히려 광복 후에는 염전의 분포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이는 다분히 가로림만 일대의 지역 특수적인 자연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것의 영향에 따른 토지 이용의 地理的 長期持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일제시기 초반부터는 煮鹽을 대체하는 天日製鹽 방식이 보급되었는데, 천일제염에 의한 생산량은 1921년 국내 총 염생산량의 42.1%였던 것이 1939년에는 86.4%로 크게 증가하였다.<sup>30)</sup> 천일제염에 의한 소금 생산을 위해서는 이전의 煮鹽式 소금 생산과는 달리 넓고 평평한 간석지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소금 생산의 공간적 거점은 조선시기의 소규모 해만들로부터 벗어나 보다 광활한 간석지가 전개된 큰 규모의 해만으로 이동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산반도 및 이원반도의 북쪽 말단부는 천일제염을 위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다. 청정도가 높은 해수 여건, 염전 조성에 편리한 광대하고 저평한 간석지 분포,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한 미개척지 잔존 등은 천일제염의 입지를 유리한 주요 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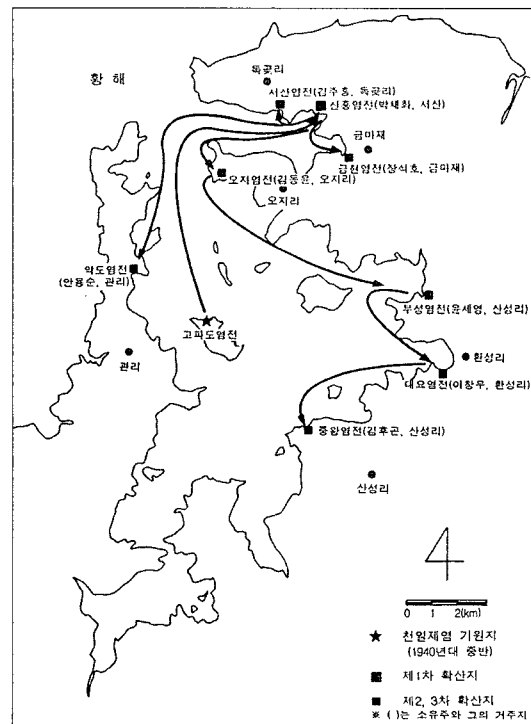


그림 4. 가로림만 일대에서 천일제염의 확산



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4에서 보이듯이 가로림만 연안에서 민영 염전으로서 천일제염이 처음 시작된 기원지는 고파도였다. 1940년대 중반경 서산 잠흥리에 거주하던 밀양박씨 박채화는 학창 시절 교우를 따라 인천의 주안 염전<sup>31)</sup>을 견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로림만에서 최초로 염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地形圖面을 참고하여 천일제염 적합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입지가 결정된 것이 고파도 염전이였다.<sup>32)</sup> 이 곳에서의 실험적 사업을 시작으로 그는 대산반도 북단의 신흥 염전을 개척하였다. 그 이후 천일제염은 신흥 염전 주변으로 확산되었는데, 대산반도 연안에 있어서 김주홍의 서산 염전, 장석호의 금현 염전, 김동윤의 오지 염전, 윤세영의 부성 염전, 이창우의 대요 염전, 김후곤의 중왕 염전과, 이원반도에서 안용순의 악도 염전 등이 그것이다.

박채화 이후 확산된 염전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거주지에 인접한 곳에서 염전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김주홍은 독곶리 거주자였으며, 장석호는 금마재 마을, 광암김씨 김동윤은 오지리, 이창우는 환동리, 김후곤은 산성리, 안용순은 관리 거주자였다. 이들은 현지 지역민들로서 가로림만의 자연 환경 특성에 대한 일상적 경험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소금 생산에 적절한 생태적 환경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를 위한 최적 입지를 판단하는데 유리했을 것이다. 이들에 의해 개척된 염전들이 대부분 각각의 거주지를 중심에 두는 근접한 거리에 분포한다는 점이 그러한 추론을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외지인에 앞서서 이 지역에서 천일제염의 입지와 확산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토지 소유와 경관 변화의 사회적 주체

#### 1) 대지주 형성 및 토지 이용의 지역적 조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로림만에서는 일제시기 동안 10정보(30,000평) 내외 규모의 해만 매립 및 경지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당시 서산 관내 매립 준공 인가지 76건중 1건이 田畝일 뿐 나머지 75건의 토지 용도가 모두 畝 專用으로

확인된다.<sup>33)</sup> 이 점에서 가로림만 일대의 주된 토지 이용은 일제시기를 지나면서 鹽田에서 耕地化로의 轉換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 경지화로의 전환을 선도한 사회적 주체들이 당대 이 지역의 주요 자본가였음은 분명하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이 그 이전 시기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집단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혈통적 출신 계통이 조선시기 이 지방에서의 정치·사회적 주도 집단과 일치하지는 않았음을 말한다.

표 4는 조선시기에 거주지가 서산 지방으로 확인된 생원·진사 합격자의 현황이다. 종족집단별 생원·진사 합격자는 조선 시기 각 지방의 사회·정치적 주도 세력과 그들의 재편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자료인데, 이 표로부터 확인되는 서산 지방의 주도적 사회집단은 조선시기에 있어서 慶州金氏, 淸州韓氏, 全州李氏, 驪興閔氏, 密陽朴氏, 瑞山柳氏의 순위를 보인다. 조선 초기로 올라갈수록 서산류씨, 즉 본관을 해당 지방에 둔 세력이 확인된다는 점은 타지방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서산 지방에서 가장 지배적인 사족이었던 성씨는 단연 경주김씨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주김씨는 조선 효종 때 김홍욱(1602-1654)이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하는 등 이미 조선 중기부터 서산지방의 명문 거족으로 등장하였으며 조선 영조(1694-1776)의 繼妃 貞純王后

표 4. 생원·진사 배출 추이(서산군, 조선시기)

구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慶州金	1			1	2	2	4	4	2	2	4		22(25.9)
淸州韓				1			2	5	2	2			12(14.1)
全州李				1		1				1		3	6( 7.1)
密陽朴											4	2	6( 7.1)
驪興閔				2						1		2	5( 5.9)
瑞山柳	1	1		1									3( 3.5)
延安李								2	1				3
咸平李										2			2
寧越嚴											1	1	2
光山金											2		2
기타	2	1		2	2	4	1	1	1	8	2		2
합계	0	4	2	4	3	6	8	12	10	7	9	20	85

\* 출처: 『사마방목』.

(1745-1805)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세거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들의 혈연·지역적 정체성을 ‘한다리<sup>34)</sup> 김씨’라 표현하는 성향도 경주김씨내의 다른 계파들과 차별하려는 것과 함께 서산 지방의 명문거족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 생원·진사의 합격자 빈도 역시 가장 높고 지속적이었던 점은 서산 지방에서의 이들의 세력이 조선말기까지 계속되었음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9년 자료에 의하면 일제 시기에 들어서 경주김씨는 단 한명도 대지주로 성장하지 못했다. 특히 조선시대 서산 지방 내에서 경주김씨가 가졌던 비중이 절대적으로 월등했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사실은 구한말과 일제 초기를 지나면서 지역적 주도 세력의 변화, 즉 지역 엘리트(local elite)<sup>35)</sup>의 再編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경주김씨 외에 조선시대 서산 지방의 지배적 종족 집단이었던 청주한씨, 전주이씨, 여흥민씨, 밀양박씨, 서산류씨의 경우 역시, 청주한씨 출신 1명을 제외하면 일제시대 서산 지방의 대지주 명부에 이들 전통 사족집단이 전혀 올라있지 못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 내에서 전술한 사회적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한층 확신시켜 준다. 1929년에 조사된 소유지 100町步(300,000평) 이상의 대지주 명부<sup>36)</sup>를 기초로 하여 현지 답사를 통해 이들의 혈연적 출신 성분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당시 서산군에 거주하던 대지주는 모두 8인이었는데 그 중 5인이 固城李氏였으며 慶州李氏, 淸州韓氏, 水原白氏가 각각 1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5는 1929년 서산군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던 대지주 명부이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청주한씨는 17세기 초반에 출현하여 조선말기까지 서산 지방

의 주요 사족으로 성장한 성씨이다. 그러나 그 외의 성씨는 그렇지 않다. 수원백씨의 경우 19세기말 처음으로 단 1명의 생원·진사를 배출한 것으로 보아 서산 지방의 전통적 사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주이씨나 고성이씨는 조선시대의 지역 사료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이 당시에 대지주로서 처음 두각을 나타낸 전혀 새로운 사회집단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5가 서산군 관내 거주자 중의 대지주 명단을 조사한 것이라면, 표 6은 서산군 관내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대지주 명부라 할 수 있다. 이 표는 1930년에 조사된 것으로서, 표에 나타난 인물들은 당시 서산군 관내에 토지 면적 100町步 이상의 소유지를 두었던 대지주들이다. 등재된 인물들의 본貫 배경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앞에서 언급한 고성이씨, 경주이씨 등의 신흥 사회집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공우와 이시우는 경주이씨이며 이기석, 이성진, 이기승은 고성이씨로 확인되어 표 5에서 살펴본 대지주 가문과 동일하였다. 이 점은 이들 대지주의 소유지와 거주지가 거의 일치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서산 지방의 在地地主로서 당당히 존재했다는 것인데, 그 만큼 전통적 권력 집단으로서 사족들에 의한 정치·사회적 연망(nexus) 및 토지 지배권이 미약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실제로, 이 지방에서 정치·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았던 경주김씨의 경우 이들에 의한 지역화과정은 생태적 정착 단계<sup>37)</sup>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여, 구한말까지도 서산 지방내 여타 사족들을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포섭시키지 못했을 정도이다.

표 6에 제시된 인물 중에는 경주김씨나 청주한씨, 전주이씨 같은 전통적 사족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sup>38)</sup> 서산군 전체 대지주 소유 총면적(5,395町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3%(879町步)에 불과했다. 반면 신흥 대지주 집단의 경우, 대표적인 경주이씨와 고성이씨의 소유 면적만 합하여도 전체의 과반수인 51.4%에 달한다. 地目別 최대 지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田畝 소유 최대 지주 이기석, 전답 이외의 기타 地目(삼림지 위주) 소유 최대 지주 이기승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들에게 대토지 소유가 가능했던 일차적 배경은 염업에 의한 자본 축적에 있었다.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표 5. 일제하 서산군 거주 대지주 명단(100町步이상, 1929년)

주 소(서산군)	姓名	本貫
지곡면 환성리	이공우(李公雨)	慶州李氏
근흥면 안기리	이기훈(李基訓)	固城李氏
정미면 덕마리	한창동(韓昶東)	淸州韓氏
태안면 남문리	백남복(白南復)	水原白氏
남문리	이기승(李基升)	固城李氏
남문리	이창진(李暢鎭)	"
남문리	이성진(李誠鎭)	"
음암면 유계리	이택진(李擇鎭)	"

표 6. 서산 관내 소유지 면적 100정보 이상의 대지주 명부(1930년)

경영지	소유지 면적(町)				창립년월	주소	성명
	畓	田	기타	계			
충남 서산군	69	89	19	177	1881. 11	부석면 취평리	한창동(韓昌東)
	17	98	30	145	1878. 12	부석면 강당리	이용구(李龍求)
	44	66	21	121	1877.	부석면 지산리	김영복(金永福)
	79	74	126	281	1924. 3	지곡면 환성리	이공우(李公雨)
	68	17	87	172	1912. 3	대호지면 덕마리	한창동(韓昶東)
	85	11	51	147	1916. 4	운산면 가좌리	류상렬(柳相烈)
	108	74	91	273	1918. 12	고북면 가구리	김동익(金東益)
	80	6	144	230	1916. 3	태안면 동문리	윤수병(尹秀炳)
	480	160	205	845	1900. 2	태안면 남문리	이기석(李基奭)
	318	32	117	467	1907. 12	태안면 남문리	백남복(白南復)
	93	64	73	230	1905. 12	태안면 남문리	이시우(李時雨)
	93	10	102	205	1892. 10	태안면 남문리	김규항(金圭恒)
홍성·서산	73	37	10	120	미상	태안면 남문리	이성진(李誠鎭)
충남 서산군	107	42	5	154	미상	태안면 인평리	가국노(賈國魯)
	30	62	83	175	1890.	근흥면 용신리	조병순(曹秉純)
	58	12	45	115	1906. 2	원북면 시목리	조재길(趙載吉)
	137	98	1,061	1,296	1902. 2	태안면 남문리	이기승(李基升)
서산·당진	174	26	51	251	1897. 10	당진 석문면 삼화리	인근식(印謹植)

이들은 해만 개간을 주도했으며 서산 지방의 광활한 삼림지를 매입하여 적극 개간함으로써<sup>39)</sup> 일제시기 이후 경관 변화의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서 부상하였다.

표 5와 표 6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제시기 전반, 서산 지방의 전통적 권력 집단 즉 조선시기의 사족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사회집단이 출현했다는 점, 둘째, 이들 신흥 사회집단은 田畓과 森林地 등 모든 地目에서의 대토지 소유자로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염업을 통한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경지 개간과 삼림지 벌채의 사회적 주체로 부상했다는 점, 넷째,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일제시기를 지나면서 經濟的 支配集團으로서의 존재를 넘어 政治·社會的 權力集團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충분히 드러난 바와 같이 고성이씨와 경주이씨이다. 과연, 이들 신흥 사회집단은 대지주로 성장하기 전인 조선시기에 어떠한 신분의 존재였을까? 당초 이들의 생태적 본거지는 어디였으며, 어떤 사회·경제적

신분의 사람들이었고, 어떠한 지역적 조건을 배경으로하여 대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2) 사례 분석: 경주이씨, 고성이씨

일제시기 대지주 명부에서 나타난 경주이씨와 고성이씨 가문은 조선후기까지만 하여도 경제적 말단 계급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가문 공히 내포 지역의 가로림만 혹은 천수만 연안에서 소금 생산에 종사한 노동자, 즉 鹽漢 출신이었다.<sup>40)</sup> 鹽漢은 조선시기에 鹽干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들의 신분은 '身良役賤'으로 규정되었다(유승원, 1979; 이찬희, 1984). 사회적으로는 분명한 良人이었으나 노동의 고된 정도에 있어서는 賤役으로 인식될 만큼, 사회·경제적 하층부의 양인들이 종사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소금 생산은 국가의 전매 사업이었으나, 17세기 이후의 조선에서는 궁방이나 권세가에 의해 염업의 私占化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유필조, 1996). 여기서 궁방이나 권세가들의 사점화란 염업에의 직접적 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권력을 바탕으로 공유지인 해만의 사적 점유를 주장하고 이 공간의 사용에

대한 토지 임대료 혹은 직접적인 소금 징수 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소금 생산은 이익이 대단히 많은 산업이었기 때문에, 염업을 지배한 주체들은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였을 것이고 자연히 염호들에 대한 착취는 심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17세기이후 해안에서 소금 생산을 담당했던 鹽戶들은 국가 혹은 권세가들에게 鹽稅를 바치면서 생활하였는데, 부과되는 세금은 시기를 막론하고 과중하였다(박평식, 1997). 이와 함께, 조선시기 황해안의 일반적인 소금 생산 방식이었던 자염업에 있어서 소요되는 노동은 대단히 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생계 여건은 매우 열악하였고 이에 따라 鹽役은 천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함께 가로림만 연안의 지역적 조건은 이 일대에 거주하던 鹽漢의 경제력을 크게 증대시켜 주었다. 일제시기의 공유 수면 매립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궁방이나 권세가들의 존재가 뚜렷치 않았던 가로림만 일대의 서산과 태안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해안들이 공유지로서 인식, 존속되었다. 설령 국지적으로 궁방이나 권세가들에 의한 염전 점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통감부 시기(1906-1910)를 지나면서 궁방이 혁파되었으므로 이 같은 정치적 변동 속에

서 염한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크게 해소되었거나 적어도 염한들의 수익 추구가 비교적 자유로워졌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한말, 경주이씨와 고성이씨 역시 그러한 공유지들 중 하나에서 각각 소금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로림만 연안은 해상로를 통해 인천 및 한양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았는데, 수많은 사설 연안 항로<sup>41)</sup> 및 구한말과 일제시기 동안의 정기 항로 개설<sup>42)</sup>은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수도권의 의미를 소금 소비 시장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기 京江의 소금집산지였던 마포에의 소금 공급은 경기도 남양엽과 함께 충청도 서산 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승제, 1956). 바로 그 서산 염의 실체 중에 경주이씨와 고성이씨가 있었다. 서산의 경주이씨와 고성이씨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중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금 판매와 상품 교역을 통해 막대한 재력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대지주 명부에 등재된 경주이씨 이공우는 지곡면 환성리의 고라리 마을(그림 2 참조)에서 염업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이 마을은 가로림만에 연접하고 있는데 고라리라는 지명은 마을이 입지한 소규모 해만의 형태가 마치 '문고리'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漢字化되면서 環城

표 7. 지곡면 환성리 경주이씨 계보

세대	계보망 및 묘소
34世	裕俊(1780-1827) [묘: 해미면 비포]
35世	*台榮: 入鄉祖 [묘: 지곡면 환성리]
36世	圭容(1844-1918) [묘: 대산면 망일리]
37世	鍾遠 [묘: 대산면 운산리]
38世	★公雨(1879-1943) [묘: 대산면 영탑리]
39世	*相鶴(1895-1960): 사당감(서산 A지구 상부) 매립을 착수했으나 실패.
40世	日炯(묘: 지곡 환성리) — 德炯(1930-현재)

※출처: 『慶州李氏 大同譜』, 총편1, 24권, 25권.

표 8. 태안 환동 마을의 고성이씨 계보

세대	계보망 및 묘소
1世	*福齡(1600년대): 해미 입향조
6世	*雲信: 환동 입향조 [묘: 태안 장산리]
12世	*希烈(1831-1918): 자염업 최초로 시작
13世	★基奭 — ★基訓 — 基祥 — ★基升
14世	★暢鎮(系) — 寧鎮 — 宇鎮 暢鎮(出) — ★誠鎮
15世	澤建 澤信 澤東 — *澤模: 제보자

★는 대지주 명부(표 5, 표 6)에 등재된 인물임.

※출처: 『晉州李氏家譜』(이택모씨 소장본).

리로 되었다. 환성리의 고라리 마을에 처음 입향한 인물은 慶州李氏(石灘派) 35世 李台榮이다(표 7).

이태영은 1800년대 중반경 서산 해미면으로부터 이 곳으로 이주하여 처음 터전을 잡고 煮鹽業에 종사하였다. 그 후손들 역시 염업을 생업으로 하였는데,<sup>43)</sup> 사실 연안 항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소금을 자신들의 뚝단배에 싣고 수도권의

로 운반, 판매하였기 때문에 대단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착 당시의 삼간 옴팡의 가옥은 22칸의 대저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현재 본채는 타지로 이전하였고 행랑채만 고라리에 남아있다.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주로 田畷 중심의 토지 매입에 투자되었고, 결국 일제시대 대지주로서 이태영의 曾孫인 이공우가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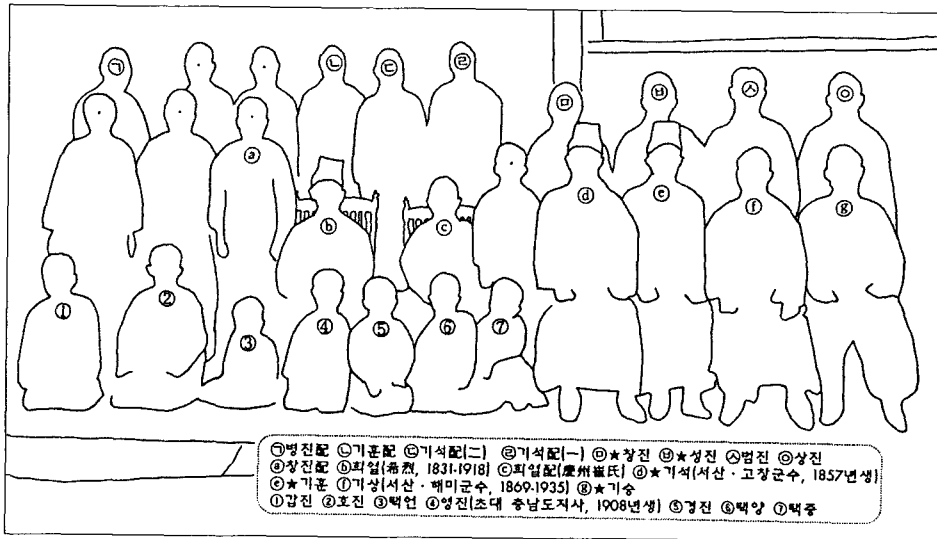


그림 5. 내포 지역의 대지주: 서산의 고성이씨 이희열 일가  
(1913년경 촬영, 장소: 태안의 환등 家宅, 사진 출처: 이희열 증손 이택모씨 소장)

★는 일제시기 서산군 대지주 명부(1929, 1930)에 등재된 바 각각 100町步(300,000평) 이상씩의 대토지 소유자들이다(표 5, 표 6 및 표 8에 등장하는 인물임). 이들의 父 이희열은 海灣에서의 煮鹽業 노동자인 鹽漢 출신으로서 구한말 일제시기 초반을 거치면서 소금 판매에 기반하여 곡물 및 布의 교역을 통해 대지주로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전통시기의 사족 집단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엘리트로서 일제시기이후 이 지역의 삼림지 개간과 경지 개척을 주관하며 경관 변화를 주도하였다.

고성이씨의 경우도 소금 생산 및 판매를 중심으로 한 자본 축적 방식은 유사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성이씨가 최초로 정착하여 자업업을 시작했던 마을 역시 경주이씨의 그것과 유사하게 環洞(그림 2 참조)이라 하여 고리 모양의 소규모 해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고성이씨는 조선중기 李福齡이라는 인물이 이괄(1587-1624)의 난 직후 종족에 禍가 미칠 것을 우려해 母親인 진주류씨의 본관을 따서 진주이씨로 본관명을 바꾸고 세거지에서의 族籍을 끊고 해미면에 隱居定着하였다.<sup>44)</sup> 그 후 그의 5代孫 이운신은 해미로부터 태안의 환동으로 이주하였다. 이희열(1831-1918, 이운신의 6代孫)의 行狀에 의하면 환동에서의 생활은 빈곤하였으며, 이희열은 42세때에 이 곳 환동에 인접한 귀실 마을로 分家하여 최초로 煮鹽業을 시작하게 된다.

이희열은 3斗落(약600평)의 유산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었지만 차후 염업으로 전환하였다. 처음에는 가족 노동력에 의지하여 직접 소금 생산에 임했으나 점차 고용인을 둘 수 있는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염업을 시작한지 8, 9년만에 주변의 염전을 추가로 매입하여 10여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연간 소금 생산량은 수 천석에 달했으며 경주이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금의 직교역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천 혹은 한양과 지방을 왕래하며 곡물과 布의 교역에까지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였다.<sup>45)</sup> 일제시기 대지주 명부에 등장하는 이기석과 이기승은 바로 그의 아들이고 이창진, 이성진, 이택진<sup>46)</sup>은 손자들이다(그림 5의 사진 참조). 이 중 이기승은 1913년 민족 자본에 의한 한국 최초의 지방 은행인 호서은행 창립 멤버로 가담하였을 만큼 재력이 막대하였다.

특히, 고성이씨의 경제력 향상은 정치·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수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한말, 이희열의 長男 이기석은 서산, 음성, 태안, 고창군의 군수를 역임하였고, 三男 이기상은 서산군수와 해미군수를 지냈다. 이들이 한미한 鹽漢 가문 출신으로서 實職으로 지방관에게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풍부한 재력의 사회 환원에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보상 차원에서 관직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구한말 전라도 나주 지방의 밀양박씨 박재규는 1903년 진흥미 2백석을 내어 빈민을 구제하였는데 이 사실이 군수를 통해

관찰사에게 상신되어 그 포상으로 장흥군수에 임명된 바 있다(박찬승, 1993, 216).<sup>47)</sup> 실제로, 이희열은 태안의 백화산 남쪽 옥하리에 '화양의숙'이라는 사설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고,<sup>48)</sup> 1901년부터 1913년까지는 빈민을 위해 쌀 일백석을 방출하는 등<sup>49)</sup> 여러 차례의 구제 사업에도 힘썼다. 오늘날 태안을 평천리의 후생촌 마을은 이희열의 구제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이유로 명명된 마을이며,<sup>50)</sup> 1928년 서산군 각 면장들의 발의로 이 곳에 이희열 및 그 자손들을 위한 공덕비가 세워져 현재 남아있다. 따라서, 이희열 자신이나 이기석, 이기상의 관직 진출은 아마도 이 같은 행적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포상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 후 이기석의 次男 이영진<sup>51)</sup>은 일본 유학후 초대 충청남도 도지사과 제6대 국회의원을 역임함으로써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이 같은 사회·정치적 지위의 상승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서 이들을 형성시키는 데 작용한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토지 소유는 생태적 환경으로서의 해만 및 그에 대한 적응전략으로서의 염업적 토지 이용에 토대를 둔 것인데, 이와 더불어 이들은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응하고 사회·정치적 변동에 편승함으로써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경관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서 등장하였다.

#### 4. 요약 및 결론

내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海灣이라는 자연지리적 요소로 대변될 수 있다. 해만이라는 生態的環境 속에서 인간에 의한 개척의 과정과 이 공간을 점유해왔던 사회적 주체의 문제는 이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였다. 특히 가로림만 일대는 내포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이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이므로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이 갖는 보편성을 검토하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내포 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수 많은 해만들이 분포하여 일찍부터 인간에 의한 대규모 개척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15세기 이전

부터 堰田과 堰畚 개간을 중심으로 하여 해만 개척이 활발했던 반면에, 연구 지역의 해만 개간은 조선말기까지도 극히 부진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영구하천이 발달하지 못하여 충분한 담수 공급이 불가능했다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함께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척에 장애로 작용했던 官의 空間으로서의 역사적 이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적어도 구한말까지 지역 주민들은 해만이라는 공간을 경지화에 유리한 생태적 환경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중앙의 권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연구 지역의 해만들에는 경지 개간 대신 자염 생산을 위한 경관과 토지 이용이 지역적 환경에 적합한 적응전략으로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선후기까지 내포지역의 해만 개척은 鹽田化를 위주로 진행되었다.

일제시기에 이르러 대규모 경지화가 진행되었는데 그 배경은 다분히 담수 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어 이루어졌다. 경지 개간에 있어서 외지인들은 주로 대규모 사업을 시행했고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소규모 개간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지인들의 사업 및 당대의 토목 기술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간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복이후에도 줄곧 경지화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염전화가 일제시기동안은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토지 이용으로 존속해왔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地理的 長期持續性은 소금 생산이 여전히 이 지역의 生態的 環境에 적합한 중요한 적응전략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동안 주목되는 점은 조선시기의 해만을 점유했던 자염업 종사자들이 거대한 자본가이자 대토지 소유자로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정치·사회적 변동은 鹽漢의 수익 증대를 가능케 했고 수도권과의 직교역이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 및 전통적 권력 집단인 사족층의 세력이 미약했던 점 등은 당대 이들에게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이룸으로써 경제적 지배 집단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내포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이 호남 지방의 염한이나 영남 지방 혹은 영동 지방의 염한들과는 다른 차별적 성장을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들은 전통 시기 내

포지역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던 존재로서 일제시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적 지배 집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권력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신흥 집단이 성장하는 데 의존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는데 대토지 소유의 배경은 다름 아닌 소금 생산이라는 생태적 토지이용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단초로 하여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 성장한 이들은 연구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응하고 정치·사회적 변동에 편승하면서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해만개척 및 삼림지 개간을 주도하는 등 景觀變化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 註

- 1) “忠淸則內浦爲上 … 伽倻前後有十縣俱號爲內浦”(李重煥, 1751. 『擇里志』「八道總論」‘忠淸道’).
- 2) ‘내포 지역의 경지 개간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海灣開拓」에 관한 주제 이외에 삼교천과 무한천 같은 이 지역의 주요 ‘感潮河川’ 일대의 배수 및 경지화 과정’에 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만’과 ‘감조하천’은 양자 모두 내포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경지 개간의 이해와 관련해 주목되는데, 이 두 공간이 개척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시기 및 이들 공간을 각기 점유해온 사회집단의 정치·경제적 지위 등의 면에 있어서는 두 공간 사이에 차별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자와 달리 후자가 널리 나타나는 아산만 연안의 경우 屯倉里, 貢稅里, 宮里, 宮坪里, 宮田里, 王子村, 宅洞 등과 같은 지명 분포가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지역 주민들보다는 중앙 정부와 관련된 屯田이나 宮房田, 權勢家의 民田으로서 개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이를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兵曹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백성이 海島에 도망해 들어간 자가 많으니 청컨대 朝官을 보내어 刷還하게 하소서.” 임금의 쇄환할 계책을 물으니 沈滄 등이 아뢰기를 “바닷가 연변의 백성이 여러 섬에 도망해 들어가서 혹은 고기를 낚고 소금을 굽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자도 있고, 혹은 농사로 생활하는 자도 있으며, 혹은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자도 있는데… 그들이 뜻하지 아니할 때에 나가서 찾아 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을 보내서 기묘한 꾀를 내어 찾아 잡고…”(『世祖實錄』 7年 8月 6日 癸酉條).
- 4) 『朝鮮經國典』 上, 賦典, 山場水梁.
- 5) 조선시기 山林川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인식 및 운영 원리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남원우, 1988, 16세기 ‘山林川澤’의 折受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6) 가령, 다음과 같은 기록들에서 海澤 개척을 둘러싼 백성

- 과 사족간, 혹은 왕자들간, 권세가들간의 송사를 확인할 수 있다. 『成宗實錄』 5年 10月 19日 辛丑條: 『中宗實錄』 35年 10月 22日 庚辰條: 『中宗實錄』 35年 10月 24日 壬午條: 『明宗實錄』 9年 5月 11日 庚戌條: 『明宗實錄』 14年 2月 9日 辛亥條: 『明宗實錄』 21年 12月 6日 壬辰條: 『宣祖實錄』 7年 3月 8日 癸未條: 『宣祖實錄』 11年 7月 16日 乙丑條: 『仁祖實錄』 1年 10月 28日 甲寅條: 『仁祖實錄』 14年 8月 1日 壬申條 등.
- 7)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 權近在 평택현의 海澤을 받아 방죽을 쌓고 밭을 만들며...”(『世宗實錄』 8年 9月 3日 癸巳條).
  - 8) 일찍이 정승을 지낸 관원과 의정부·육조·대간을 불러 명하여 訟事의 결단과 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키는 등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 孫舜孝는 의논하기를,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킨 일은 당초에 법을 제정하였을 적에는 임시로 소속시킨 후에 분간하도록 한 것이니, ... 海澤·堰畓을 서로 접거하여 송사를 일으킨 것과, ... 모두 자기의 절박한 물결이 아니므로 情理가 알미운 것입니다. ...”(『成宗實錄』 10年 11月 12日 癸巳條).
  - 9)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황해안에서 조수간만의 차이는 연별, 계절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인천에서는 9.8m, 군산 부근에서는 7.7m까지 관측된 바 있다. 따라서 내포 지역의 경우도 조수간만의 차이는 7m~9m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10) 태안 지방의 경우, 한양으로부터 원격지라는 이유로 강무처 지정이 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백성의 입거가 허용된 것은 태종 16년(1416년) 6월부터이다(다음 기록을 참조: 『太宗實錄』 16年 2月 4日 丁卯條: 同年 6月 26日 丙戌條: 同年 7月 5日 甲午條).
  - 11) 『仁祖實錄』에서는 전란시의 임시 수도로서 江都가 언급되면서, 이의 방어책으로 덕물도, 남양의 대부도, 인천의 자양도를 잇는 선을 내측 방어선으로 삼고, 황해도와 연안, 해주, 백령도와 충청도의 서산, 태안을 잇는 선을 중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있다(『仁祖實錄』 17年 7月 17日 壬申條).
  - 12) 『世宗實錄』 27年 10月 9日 庚戌條: 『輿地圖書』 「忠淸道」 泰安條.
  - 13) 현재의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대소산 일대에 해당함.
  - 14) 목장의 입구인 ‘場門’은 현재의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와 대요리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였다. 오늘날 ‘문곳이’ 혹은 ‘문곳이’라는 지명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이 곳 場門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 및 서쪽 방향으로 성곽이 남아 있다.
  - 15) 『世宗實錄』 「地理志」 忠淸道 泰安條: 『輿地圖書』 「忠淸道」 瑞山條.
  - 16) 현재의 대산읍 화곡리 반곡 마을에 비정됨.
  - 17) 『世宗實錄』 27年 10月 9日 庚戌條: 『世祖實錄』 3年 10月 2日 壬辰條.
  - 18) 『世宗實錄』 14年 8月 1日 丁亥條: 27年 5月 28日 辛丑條.
  - 19) 벼[漢字로는 筏]이란 소금 생산을 위한 가마와 그 보호 시설을 말하며, 개펄 흙의 염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 쟁기와 썬래질을 반복하는 일정 면적의 간석지를 벼밭이라 한다.
  - 20) 서산과 태안 지방에서는 광복 전후의 시기에 天日製鹽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서해안에서 널리 행해졌던 煮鹽式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이은우, 1996). 자염식 방법에서는 연료 문제의 해결과 함께 해만 개펄의 입자 구성 중에 사질 성분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같은 입자구성은 개펄의 염도를 높이기 위한 쟁기 및 서래의 노동 효율성을 높여주고, 개펄 흙의 여과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농도 높은 염수 생산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 21) 『宣祖實錄』 28年 12月 18日 丙辰條.
  - 22) 실제로 조선시대 서산과 태안은 전라도 나주, 영광과 함께 국가가 주관하여 鹽井을 운영하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유필조, 1996, 81).
  - 23) 아산만 일대에서 전개된 宮家의 해만 개척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참고:
    - ①사간 李敏迪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암행어사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內浦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唐津에서 沔川까지의 海洋 1百里가 임해군과 금양위 兩家에 절수되어 있었습니다. ... 지금까지 侵虐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목숨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顯宗實錄』 3年 10月 4日 甲辰條).
    - ②사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牙山의 海澤을 서로 다룬 일에 대해 하문하였으므로 ... 이것이 왕자들이 해택을 서로 다투는 일입니다. ...”(『中宗實錄』 35年 10月 24日 壬午條).
  - 24) 일제 당시의 서산군에는 현재의 서산과 태안 관할구역이 함께 통합되어 있었음.
  - 25) 가로림만 이외의 74건중 54건은 안면도의 해만에서 매립이 이루어졌고 매립 주체는 모두 안면도 거주민이었다.
  - 26) 浦江이란 경지의 한쪽 부분을 차지하는 직사각형 형태를 가진 소형 저수시설을 말한다. 포강은 자연 샘을 중심으로 그 저수 면적을 확장시킨 것으로서, 대략 4-5m 깊이에 가로 7-8m, 세로 10m 내외의 규모를 가졌다. 포강의 분포 빈도는 일정치 않았지만 작은 골, 즉 소형 해만 단위로 한 두 개씩 분포하였다(제보: 이은우(70), 서산향토연구회장).
  - 27) 개성의 다른 이름인 ‘松都’ 지명에서 빌어온 명칭임.
  - 28) 제보: 이은우(70), 서산향토연구회장.
  - 29) 광복이후 지역 주민 이상학씨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현재의 서산 A지구 상부에 해당함.
  - 30) 吉田敬市, 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民昌文化社影印, 1994), 406.
  - 31) 인천의 주안 염전은 1906년 일제에 의해 천일제염의 최적으로 선정된 후 1907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제염 시험장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大韓民國 商工部, 1964, 『鹽白書』).
  - 32) 제보: 이은우(70), 서산향토연구회장.
  - 33) 李敏寧, 1927, 『瑞山郡誌』(下), 「公有水面埋立」條.
  - 34) 현재의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한다리 마을은 경주김씨 세거지로서, 영조 21년(1745년) 이 곳에서 정순왕후 김씨가 출생하였고 현재 생가가 보존되어 있다.
  - 35) 전통적으로 시대별 지배 계층을 인식함에 대해서는 가령 고려시기의 귀족, 조선시기의 양반과 같이 共時的 입장



- 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그러나, Esherrick, J.W와 M.B. Rankin은 중국을 사례로 하여 정기 시장권과 사회 구조의 관계에 대한 경제지리학자 Skinner의 성과(1964)를 바탕으로 지배 계층이 지역적 단위로 존재함을 주장한 바 있다(1990). 그들은 지배 계층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지배 계층의 유형의 다양성(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및 지역적 변이(regional variation)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같이 지배 계층에 대한 지역적 차별성을 염두에 둔 개념이 「지역 엘리트」(local elite)이다.
- 36) 해당 자료는 일제시기 朝鮮總督府에서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재발간하였다. 다음 서적의 해당 부분을 참고: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 名簿』, p.145.
- 37) 사회집단의 지역화과정에 있어서 생태적 정착 단계란 어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함에 있어서 거주를 위한 물적 토대로서 정착지를 선정하고 촌락을 형성해가는 시기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국지적(local) 규모의 공간만을 점유한 채 지역적(regional) 스케일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이다(전종한, 2002a).
- 38) 그 밖에 한창동은 청주한씨, 이용구는 전주이씨, 김영복과 김동익은 경주김씨, 백남복은 수원백씨, 김규항은 김해김씨, 가국노는 소주가씨로 확인되었다.
- 39) 제보: 고성이씨 이택모(70, 태안읍 인평리), 고성이씨 이여상(71, 태안읍).
- 40) 제보: 고성이씨 이택모(70, 이기석의 孫), 고성이씨 이여상(71, 이택모씨와 9촌간), 경주이씨 이덕형(76, 이공우의 孫).
- 41) 일제시기동안 가로림만에서 인천을 연결하던 사설 항로는 대단히 많았다. 이들 사설 항로는 각각의 해안에서 출발하여 육지로부터 가까운 연안을 따라 인천과 한양에 도달하였으며,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였다[제보: 이덕형(76), 이공우의 孫].
- 42) 가로림만의 구도 나루(서산 팔봉면 호리)와 서산시 성연면의 명천포(명천리 포구 마을)는 일제시기에 서산지방과 인천을 연결하는 정기 여객선의 출항지였다[제보: 이은우(70), 서산향토연구회장].
- 43) 필자에게 고라리 마을 및 증가, 자염터 등을 안내한 경주이씨 제40세 이덕형씨(76)의 代까지 이 곳에서 鹽漢의 일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 44) 이러한 점은 일제시기 대지주 이기석, 이기상, 이기훈의 父인 이희열의 行狀에서 확인된다. 다음 내용을 참고: 「仁祖朝甲子, 有諱福齡以逆迺親族, 懼禍將及改本貫固城從母夫人柳氏之貫晉州, 因絕跡於忠清右道之海美, 後復移居泰安」[『遠慮堂遺事』「行狀」, 태안읍 인평리 이택모(70)씨 소장].
- 45) 「四十有二歲, 始設製鹽場於貴實里, 與雇傭者同苦積勞八九年間, 鹽業大振附近增置鹽田, 至於十餘所而, 每年煮出者數千石矣, 爲之運送遠近諸浦, 交易穀布等物...」(『遠慮堂遺事』「行狀」)
- 46) 이택진은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5). 유계리는 당시 한다리 김씨의 종족촌락이었기 때문에 타성씨는 소수에 불과하였는데 이 곳에 거주한 고성이씨는 이충진이라는 인물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유계리의 이택진은 이충진과 이름을 달리한 동

일 인물로서 추정된다.

- 47) 『羅州郡誌』(1980, p.531)의 내용을 언급한 박찬승(1993)의 글에서 재인용.
- 48) 「嘗覽時代之變遷, 私設華陽義塾於白華之南沃下里, 延教師募學徒, 給紙筆免月謝, 期於教育之成就於此數者, 可見公之德業事功之美且大也」(『遠慮堂遺事』「行狀」).
- 49) 「明治三十五年三から月大正二年まで救貧施米か凡そ白石に斤いそです」(『遠慮堂遺事』「第八」進んで公益を廣む).
- 50) 제보: 이택모(70), 이희열의 孫.
- 51) 이영진의 生父는 이희열의 三男인 이기상이다.

## 文 獻

- 고승제, 1956, “이조염제의 기본구조,” 서울대 논문집, 3·4.
- 김경수, 1999, “영산호 주변의 간석지 개간과정과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11, 73-94.
- 김경옥, 2000,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남궁봉, 2001, “한국의 농지 개간 과정에 관한 연구: 金萬頃 평야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3(2), 1-20.
- 남원우, 1988, 16세기 ‘山林川澤’의 折受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박찬승, 1993, “일제하 나주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II, 서울: 여강출판사.
- 박광식, 1997, “조선전기 염의 생산과 교역,” 국사관논총, 76, 71-112.
- 유승원, 1979, “조선초기의 鹽干,” 한국학보, 17.
- 유필조, 1996, “17, 18세기 전반 염업 발전과 염분 사점,” 한국사론, 36, 53-103.
- 이문중, 1988,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6, 서울대 지리학과.
- 이은우, 1996, “조선조 제염에 있어서 서산지방의 위치와 제염방법,” 향토사와 향토문화, 도서출판 날빛, 서울.
- 이준선, 1998, “강릉지역의 저습지 개간과정,” 문화역사지리, 10, 55-68.
- 이찬희, 1984, “조선전기 鹽干에 대한 연구,” 남도영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태학사.
- 이태진, 1983, “16세기 연해지역의 연전 개발-척신 정치의 경제적 배경 일단-,” 김철준박사 화

- 갑기념 사학논총.
- 전중환, 2002a, “중족집단의 지역화과정에 관한 연구(I): 생태적 정착단계,” 사학연구, 67, 131-170.
- \_\_\_\_\_, 2002b, “역사지리학 연구의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노정-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215-252.
- 정치영, 2000, “지리산지의 농경지 개간,” 문화역사지리, 12(1), 57-76.
- 최영준, 1991, “강화지역의 해안저습지 간척과 경관의 변화,”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30.
- 홍금수, 2001, “18-19세기 交河地域의 토지이용,” 문화역사지리, 13(1), 35-66.
- 『朝鮮經國典』.
- 『朝鮮王朝實錄』(CD-Rom).
- 『擇里志』(李重煥, 1751).
- 『瑞山郡誌』(李敏寧, 1927).
- 『遠慮堂遺事』(이택모 소장, 태안 인평리).
- 『大地主名簿』(朝鮮總督府, 1929: 1930: [韓國農村經濟研究院(再發刊), 1985,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名簿大地主名簿』].
- 『朝鮮水産開發史』[(吉田敬市, 1954, 朝水會(民昌文化社 影印, 1994)].
- 『鹽白書』(大韓民國 商工部, 1964).
- 族譜類(慶州李氏大同譜; 晉州李氏家譜; 固城李氏大同譜).
- 地形圖類(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 朝鮮總督府; 1960年代 地形圖; 1990年代 地形圖).
- 韓國精密土壤圖(韓國農村振興廳).
- Darby, H.C. and Terrett, I.B.(eds.), 1954, *The Domesday Geography of Midland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by, H.C., 1957, *The Domesday Geography of Easter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herick, J.W. and M.B. Rankin, 1990, *Chinese Local Elite and Patterns of Domin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kinner, C.W., 1964,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Journal of Asian Studies*, 24(1).

최초투고일 03. 05. 07

최종접수일 03. 06. 07